



# THE UNITED

MONTHLY MAGAZINE  
2018.05 / 제3호



# 신한은행

## 2018 SEASON

2018시즌 경기일정  
2018시즌 선수명단

## KEY PLAYER INTERVIEW

무고사, "K리그 레전드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 ROOKIE INTERVIEW

김정호,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 TRAINING TIP

이승재 트레이너가 알려주  
는 꿀! TIP! - 종아리



# INCHEON UNITED MATCH SCHEDULE

03월 03일(토) 16:00	<b>2 강원 : 인천 1</b>	춘천송암	07월 28일(토) 19:00	<b>전남 : 인천</b>	광양축구전용
03월 10일(토) 14:00	<b>3 인천 : 전북 2</b>	인천축구전용	08월 04일(토) 19:00	<b>인천 : 포항</b>	인천축구전용
03월 17일(토) 14:00	<b>0 인천 : 대구 0</b>	인천축구전용	08월 11일(토) 19:00	<b>대구 : 인천</b>	대구스타디움
04월 01일(일) 14:00	<b>1 서울 : 인천 1</b>	서울월드컵	08월 15일(수) 19:30	<b>인천 : 상주</b>	인천축구전용
04월 07일(토) 14:00	<b>2 인천 : 전남 2</b>	인천축구전용	08월 19일(일) 19:00	<b>강원 : 인천</b>	춘천송암
04월 11일(수) 19:30	<b>0 인천 : 상주 1</b>	인천축구전용	08월 22일(수) 19:30	<b>인천 : 전남</b>	인천축구전용
04월 14일(토) 16:00	<b>4 제주 : 인천 2</b>	제주월드컵	08월 25일(토) 19:00	<b>제주 : 인천</b>	제주월드컵
04월 22일(일) 16:00	<b>2 인천 : 수원 3</b>	인천축구전용	09월 02일(일) 18:00	<b>인천 : 울산</b>	인천축구전용
04월 25일(수) 19:30	<b>2 울산 : 인천 1</b>	울산문수	09월 15일(토) 16:00	<b>인천 : 수원</b>	인천축구전용
04월 29일(일) 16:00	<b>2 인천 : 경남 3</b>	인천축구전용	09월 22일(토) 14:00	<b>포항 : 인천</b>	포항스틸야드
05월 02일(수) 19:30	<b>0 포항 : 인천 0</b>	포항스틸야드	09월 26일(수) 16:00	<b>서울 : 인천</b>	서울월드컵
05월 05일(토) 14:00	<b>인천 : 제주</b>	인천축구전용	09월 30일(일) 16:00	<b>인천 : 경남</b>	인천축구전용
05월 13일(일) 14:00	<b>상주 : 인천</b>	상주시민	10월 06일(토) 14:00	<b>대구 : 인천</b>	대구스타디움
05월 20일(일) 14:00	<b>인천 : 울산</b>	인천축구전용	10월 20일(토) 14:00	<b>전북 : 인천</b>	전주월드컵
07월 07일(토) 19:00	<b>전북 : 인천</b>	전주월드컵			
07월 11일(수) 19:30	<b>인천 : 강원</b>	인천축구전용			
07월 14일(토) 19:00	<b>경남 : 인천</b>	창원축구센터			
07월 18일(수) 19:30	<b>수원 : 인천</b>	수원월드컵			
07월 22일(일) 18:00	<b>인천 : 서울</b>	인천축구전용			



K리그 1(클래식) 스플릿 라운드 경기 일정은  
10월 이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FA컵 경기 일정은 7월 중 개최 될 예정이며,  
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www.incheonutd.com)를 통해 추가 및 변경되는 경기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INCHEON UNITED 2018 SQUAD



**이기형 감독**  
HEAD COACH



**박성철 코치**  
COACH



**임중용 코치**  
COACH



**권찬수 코치**  
GK COACH



**자스민 코치**  
COACH



**이승재 AT**  
ATHLETIC TRAINER



**이동원 AT**  
ATHLETIC TRAINER



**김현진 AT**  
ATHLETIC TRAINER



**1 정산**  
GOALKEEPER



**21 이진형**  
GOALKEEPER



**31 이태희**  
GOALKEEPER



**2 노성민**  
DEFENDER



**3 김용환**  
DEFENDER



**5 강지용**  
DEFENDER



**6 최종환**  
DEFENDER



**15 김대중**  
DEFENDER



**16 이운표**  
DEFENDER



**20 부노자**  
DEFENDER



**26 광해성**  
DEFENDER



**32 명성준**  
DEFENDER



**33 정원영**  
DEFENDER



**44 김정호**  
DEFENDER



**47 김동민**  
DEFENDER



**4 한석종**  
MIDFIELDER



**8 이정빈**  
MIDFIELDER



**14 윤상호**  
MIDFIELDER



**17 고슬기**  
MIDFIELDER



**18 박종진**  
MIDFIELDER



**22 김동석**  
MIDFIELDER



**24 이우혁**  
MIDFIELDER



**25 김석호**  
MIDFIELDER



**39 임은수**  
MIDFIELDER



**40 최범경**  
MIDFIELDER



**7 송시우**  
FORWARD



**9 무고사**  
FORWARD



**10 아길라트**  
FORWARD



**11 박용지**  
FORWARD



**13 김진야**  
FORWARD



**19 쿠비**  
MIDFIELDER



**23 김덕중**  
MIDFIELDER



**27 문선민**  
FORWARD



**28 이효균**  
FORWARD



**29 김보섭**  
FORWARD



**30 김혁중**  
FORWARD



**36 김대경**  
FORWARD



**37 이호석**  
MIDFIELDER

# 이승재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꿀! TIP!

## 종아리

- 종아리 왜 쉽게 피로하고, 잘 붓는 걸까?
- 종아리 쥐가 났을 때, 응급처치 방법!
- 종아리 붓기 빼는 스트레칭과 운동!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요즘 들어서 정말 봄 날씨가 찾아온 것 같다.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연스레 드러나는 우리의 종아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4월호 매거진 주제-발목염좌에 이어서 이번에는 발목 바로 위에 위치한 종아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선수들은 종아리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알이 자주 배긴다. 종아리는 선수들이 가장 많이 마사지를 필요로 하는 부위이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종아리에 피로감을 많이 느낄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느끼게 되는 다리 피로는 현대인들의 흔한 현상이다. 특히 종아리가 단단해진 느낌과 부어있는 증상을 '하지부종'이라고 한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심장이나 신장 질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인 대부분이 장시간 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어서 생기는 다리 전반의 혈액순환장애로 볼 수 있다.

종아리가 쉽게 피로하고 잘 붓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직립자세와 보행 때문이다. 우리가 뛰고 걸을 때 그리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우리의 종아리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상, 하체의 무게를 버텨주고 무게중심을 잡아 직립자세를 유지하게 해준다. 우리의 종아리는 우리도 모르게 쉬지 않고 수축-이완-긴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심혈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신체의 심혈관계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이 팔과 다리를 통해 몸 전체로 퍼져 나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가진다. 발과 종아리까지 도달한 혈액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심장으로 다시 올려 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종아리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을 짜주는 펌프역할 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그런데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로 인해 근육이 긴장되고 굳어지면 온전히 그 기능을 못한다. 발과 종아리에 심장으로 미처 올라가지 못한 혈액들이 남아 부종이 생기고 셸룰라이트가 쌓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종아리는 쉽게 피로하고 잘 붓는다. 비교적 남성보다 근육이 부족한 여성들이 종아리가 자주 붓는다. 여성들이 주로 신는 하이힐도 종아리근육에 긴장감을 주어 더욱 피로하게 한다. 이러한 하지부종증상이 만성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지정맥류'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정맥류 환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2-4배가량 더 흔히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면 혈액순환을 위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는 것이 좋다. 집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물에 족욕과 종아리를 간단하게 풀어주는 자가 마사지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종아리 근육 경련시 응급 처치 방법

- 1 환자를 바로 눕히고 근육 경련이 일어난 다리를 들어 올려 준다.
- 2 근육 경련이 일어난 근육의 반대방향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대부분 종아리(비복근)에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한손으로 발 뒤꿈치 잡아주고 다른 손으로 앞꿈치 부분을 감싸 잡고 발가락을 몸 쪽으로 향하도록 눌러주면서 충분히 이완될 때까지 지속한다.  
\*이때 근육을 지나치게 강하게 스트레칭 시키면 오히려 근육의 이완에 방해할 수 있고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3 따뜻한 수건으로 근육의 긴장감을 풀어준다.
- 4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 하거나 스트레칭 해준다.

### 1 뒤꿈치 들었다가 내려주기

- 1) 스텝박스에 앞꿈치만(1/3정도) 딛고 올라섭니다.
- 2) 양발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가볍게 벽을 짚어도됩니다)
- 3)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올려 종아리를 완전히 수축시킵니다.
- 4) 천천히 종아리가 다시 이완되는 것을 느끼면서 스텝박스 기준선보다 내려갑니다.

\*계단이나 두꺼운 책,판 위에서도 가능합니다.

### 2 옆드린 자세에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 1) 옆드린 자세에서 스트레칭할 종아리 뒤에 반대 발을 올려 무게를 더 실어줍니다.
- 2) 스트레칭하는 종아리로 수축-이완되는 느낌을 가지면서 뒤꿈치를 바닥으로 부터 밀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 3 종아리 뒷면 스트레칭 운동

- 1) 발을 앞뒤로 간격을 충분히 벌린 후 뒷발 뒤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2) 종아리 뒷면 전체가 이완 되도록 앞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리면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킵니다.(벽에 손을 짚고 해도 됩니다.)

### 4 벽에 앞꿈치 대고 스트레칭

- 1) 앞꿈치를 벽에 밀착시켜 발가락이 충분히 꺾인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 2) 벽에 붙인 다리의 무릎을 핀 상태에서 상체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발바닥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스트레칭 되도록 합니다.



## 종아리 자가근막이완 운동

### 종아리 뒷부분 스트레칭

1. 폼롤러를 한쪽 종아리 아래에 놓는다.
2. 양손과 반대편 다리를 지면에 대고 엉덩이를 살짝 띄운다. (반대편 다리를 교차하여 위로 올려서 실시해도 됩니다)
3.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여준다.



### 종아리 앞부분-정강이 스트레칭

1. 옆드린 자세에서 두 팔로 상체를 지지하고 밸런스를 유지한다.
2. 두다리의 정강이 아래에 폼롤러를 놓는다. (한다리만 실시해도 된다.)
3.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완시킨다.



### 종아리 바깥쪽 스트레칭

1.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굽혀서 상체 밸런스를 유지한다.
2. 종아리 바깥쪽 부분에 폼롤러를 놓는다.
3.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이완시킨다.



## 키네시오 종아리 테이핑 방법

1. 키네시오 약 30cm x3개를 준비합니다. (다리 길이에 따라 다르게 준비)
2. 그림과 같이 종아리를 충분히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준비자세)



3. 뒤꿈치를 감싸도록 붙인 후 아킬레스건,종아리 위에 수직방향으로 약간의 장력과 함께 잡아 당겨 붙입니다.



3. 뒤꿈치를 감싸도록 붙인 후 아킬레스건,종아리 위에 수직방향으로 약간의 장력과 함께 잡아 당겨 붙입니다.



함께해준 문선민 선수와 함께



INTERVIEW

# ‘파검의 피니셔’ 무고사, “K리그 레전드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인천유나이티드에 입단한지 이제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덧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파검의 피니셔’ 무고사가 바로 주인공이다.

2018시즌 K리그1 5라운드에서 MVP로 선정될 만큼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무고사다. 인천의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는 무고사를 UTD기자단이 만나봤다.

## 인천 생활 ‘매우 만족’...송도의 경치가 좋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무고사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다름아닌 축구를 처음 접한 계기에 대한 질문이었다. 무고사는 “동네 친구들과 6살 때 처음 축구를 해보면서 축구가 좋아졌다. 부모님께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렇게 축구를 시작한 무고사는 오늘날 어엿한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공격수로 성장했고, 이번 2018시즌을 앞두고 인천에 입단하면서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었다.

인천에서의 도전이 현재까지는 성공이라 말할 수 있다. 완벽한 적응을 통해 골 폭풍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 생활에 대해 묻자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송도에 살고 있는데 센트럴파크 등 주변의 경치가 좋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너무도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 노력하는 골잡이 무고사...세레머니의 비밀?

무고사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그 비법에 대해 묻자 무고사는 “축구는 팀 스포츠다. 때문에 나는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팀플레이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항상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무엇보다도 기술적인 면에서 점점 발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바로 무고사에게 많은 팬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던졌다. 다름 아닌 골 세레머니에 대한 부분이다. 무고사는 득점 이후 가슴을 치고, 두 팔을 벌리는 골 세레머니를 펼치고 있다.

무고사는 “가슴을 치는 세레머니는 우선 나의 심장을 의미한다. 골을 넣었을 때 기쁨을 팀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고 싶어 어렸을 적부터

해온 세레머니”라고 밝힌 뒤 “두 팔을 벌리는 세레머니는 ‘WE ARE STRONG’의 의미가 있다. 인천이 강하다는 뜻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 데안은 좋은 친구...나 자체로 인정받고 싶다

무고사는 몬테네그로 국적으로 다수의 언론에서 K리그 레전드 데안과 비교되고 있다. 데안 역시 처음에 인천을 통해 K리그에 데뷔하고 오늘 날 레전드 반열에 올라있는 선수다. 이런 데안과의 관계에 대해 먼저 묻자 그는 “나에게 데안은 조연자이자 좋은 친구”라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그는 “직접 K리그에 와서 데안이 엄청난 선수고 레전드임을 실감하고 있다. 데안과의 비교가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데안은 데안이고 나는 나 자체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강조하며 제 2의 데안이 아닌 제 1의 무고사로 팬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올 시즌 목표에 대해서는 “팀 적인 목표는 상위 스플릿에 진출하고 싶고, 개인적인 목표로는 공격수이기에 최대한 많은 득점을 통해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굳은 각오를 밝혔다.

## “또 다른 K리그 레전드로 자리매김 하고파”

현재 무고사는 팀 내에서 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공격수로 인천 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그에게 먼 미래에 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물었다.

무고사는 “이제 인천이라는 팀에 온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때문에 당장은 좋은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며 “인천에서 최대한 오래 뛰며 많은 득점을 하며 K리그의 한 획을 긋는 레전드가 되고 싶다”라고 전하며 또 다른 K리그 레전드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개인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천의 팬들에게 “인천 팬 여러분들께서 나 뿐 아니라 팀을 위해 많은 사랑을 주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면서 “올 시즌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서 인천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작게나마 보답을 하고 싶다”며 진심어린 인사말을 전달했다.



INCHEON  
UNITED

무고사  
FORWARD

1992년 02월 26일  
188cm / 81kg

글 = 김희웅 UTD기자

(gmlndnd1101@hanmail.net)



MATCH PREVIEW

# ‘월드컵 브레이크’ 앞두고 주춤한 흐름을 다잡아라!

‘지옥의 일정’이었던 4월에 이어 5월에도 쉴 틈 없는 일정이 인천유나이티드를 기다리고 있다. 5월 말부터 6월까지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으로, 약 40여 일 간의 긴 휴식기에 돌입하기 전, 인천은 5월에 각각 제주유나이티드와 울산현대를 상대로 전반기 마지막 홈경기를 치른다.

글 = 박범근 UTD기자 (keu0617@naver.com)



**INCHEON**    12라운드 / 5월 5일(토) 14:00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JEJU**



## 어린이날을 맞아 승리의 뱃고동을 울려라!

인천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안방에서 제주를 상대한다. 가장 최근 어린이날 치른 홈경기는 2016년 전남드래곤즈전이었다. 당시에 인천은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편 인천이 가장 최근 어린이날에서 승리한 경기는 8년 전(2011년) 강원FC와의 원정경기로서 2-1로 승리했다.

앞서 인천은 7라운드에서 제주원정경기를 치렀다. 당시 인천은 제주와 난타전을 펼친 끝에 2-4로 패했다. 당시의 패배의 쓰라림이 불과 채 1달도 안 된 시점에서 맞게 된 복수전인 셈이다. 인천 입장에서 지난달 패배와 최근 제주전 무승 흐름을 동시에 끊어낼 수 있는 기회다.

제주는 좋은 실력을 가진 센터백으로 구성된 수비진이 돋보이는 팀이다. 오반석-권한진-김원일이라는 탄탄한 주전 조합에, 벤치에도 조용형, 알렉스 등 관찮은 기량을 가진 센터백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는 K리그 1 12개 팀 중 쓰리백을 사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팀이다.

기본적인 대형 자체가 3-4-1-2 혹은 3-5-2다. 제주는 뒤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기 도중에도 수비 숫자를 줄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여기에 권순형, 이찬동 등 수비형 미드필더를 반드시 1명

더 배치시킨다. 한마디로, 제주는 무게 중심을 상대적으로 뒤 쪽으로 놓는다.

그렇다고 제주의 공격이 약한 것은 아니다. 제주는 쓰리백을 쓰지만 공격 상황에서 숫자가 부족하지 않게 측면 윙백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한다. 왼쪽에 정운, 오른쪽에 김수범(또는 정다환)이 상대 진영에서 뒀어처럼 전진해 팀의 공격을 돕는다. 여기에 투톱을 주로 사용한다.

지난 시즌 K리그 1에서 13득점 3도움을 기록한 공격수 마그노를 비롯하여 A대표팀 경험까지 두루 보유한 인천 출신의 진성욱 그리고 4월 들어 골 맛을 보고 있는 제주의 새 외국인 공격수 찌아구까지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진 공격수들이 돌아가며 제주의 투톱을 구성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급 에이스는 단연 이창민이다. 이창민은 리그 최고의 중거리 슈터로서 지난 시즌부터 제주의 상위권 레이스를 이끈 장본인이다. 최대 장점인 중거리 슈팅은 물론 저돌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전진패스 등 우수한 기량을 보유하고 있어 인천 입장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JULY MATCH SCHEDULE

07월 07일(토) 19:0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07월 11일(수) 19:30  인천 : 강원  인천축구전용

07월 14일(토) 19:00  경남 : 인천  창원축구센터

07월 18일(수) 19:30  수원 : 인천  수원월드컵

07월 22일(일) 18:00  인천 : 서울  인천축구전용

07월 28일(토) 19:00  전남 : 인천  광양축구전용

## MAY MATCH SCHEDULE

05월 05일(토) 14:00  인천 : 제주  인천축구전용

05월 13일(일) 14:00  상주 : 인천  상주시민

05월 20일(일) 14:00  인천 : 울산  인천축구전용



**INCHEON** 14라운드 / 5월 20일(일) 14:00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ULSAN**



## 월드컵 브레이크 전 치르는 마지막 홈경기

인천은 월드컵 휴식기를 맞이 전 마지막 경기로 울산현대와 홈경기를 치른다. 인천은 최근 4년 간 울산과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번 시즌을 제외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과의 상대전적이 4승 5무 4패로 정확히 동률이다. 지난해 맞대결 결과도 1승 1무 1패로 동률이다.

최근 몇 년간 인천은 울산과의 상대전적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홈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2014년 8월 2일 2-0 승리 이후 4년 동안 안방에서 울산을 상대로 무승 행진(2무 3패)을 이어가고 있다. 4년 만의 울산전 홈경기 승리 도전이다. 한편 지난 9라운드 첫 대결에서는 1-2로 패했다.

울산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는 속도다. 오르샤와 김인성이 있는 울산의 측면 공격은 굉장히 빠르다. 특히 김인성의 스피드는 단연 리그 최고다. 반대쪽의 오르샤 역시도 스피드, 드리블, 킥 등 날카로운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순간의 틈을 허용하면 치명적인 상대라고 할 수 있다.

측면에서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흔들면 마지막 해결사는 주니오다. 주니오는 지난해 대구FC 시절 16경기서 12득점을 기록하며 매서운 골 감각을 과시한 바 있다. 올 시즌 울산으로 둥지를 옮겨 초반 부진을

이어갔지만 ACL 포함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견제함을 알렸으나, 최근 입은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어 이날 경기 출전 여부는 미지수다.

주니오 외에도 황일수, 김승준, 한승규 등 언제든지 상대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진이 준비한 울산이다. 울산은 확실한 수비와 중원 조합을 가지고 있다. 골키퍼 오승훈에 이명재-강민수-임종은-김창수로 구성된 포백 조합이 특히 견고하다. 그리고 중원구성 역시도 탄탄하다.

울산은 최근 중앙 수비수 리차드를 박주호와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있다. 뛰어난 수비력과 발기술로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살려 안착한 모습이다. 울산의 상승세가 리차드를 전진 배치한 시점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생각하면 이 변화가 가져온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이 경기의 최대 변수는 울산의 체력이다. 울산이 ACL 16강전 일정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울산은 수원삼성과의 ACL 16강전 일정을 소화한 뒤 인천원정에 나설 예정이다.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낀 상태에서 인천과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크기에 인천은 이를 역이용해야 한다.

# 인천유나이티드 하이트필바든존

하이트필바든존에서는  
하이트진로에서 제공하는 맥주와  
Feel 필바든치킨에서 제공하는 닭강정을  
즐기며 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닭강정은 맛보기용으로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됩니다.)



**시즌권 회원 할인**  
(선착순 5테이블 / 예매 전용)

E/N/S 일반석	W 일반석	프리미엄
10,000원	7,500원	2,500원

정상가: 테이블당(2인) 30,000원

※ 1인당 가격

# 인천유나이티드 스카이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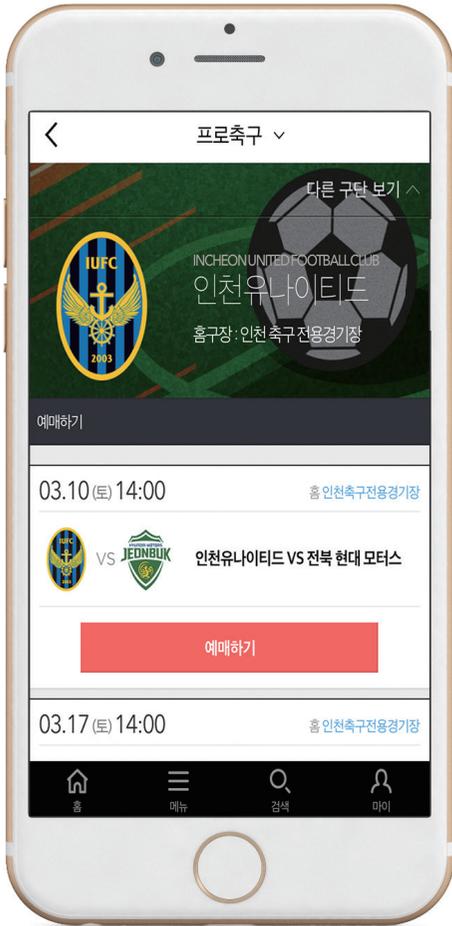
아늑한 공간에서 경기 관람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에서는  
Meals on Wheel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과 다과를 즐기며  
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즌권 회원 할인**  
(선착순 6명 / 예매 전용)

E/N/S 일반석	W 일반석	프리미엄
20,000원	15,000원	5,000원

정상가: 성인 및 청소년 30,000원 / 어린이 20,000원



## 모바일 티켓 INTERPARK MOBILE TICKET

매표소 혼잡을 피하고 싶다면?  
인터파크 모바일 티켓 APP을 다운받으면  
입장권 발권 없이 입장 가능!



## 인천유나이티드 시민주주 정보 최신화 안내

인천유나이티드는 시민주주 정보 최신화 작업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및 연락처를 비롯한 주주 정보 수정을 비롯하여 주주카드 재발급 등과 관련한 문의는 인천유나이티드 경영기획팀(032-880-5512)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OKIE INTERVIEW

# 수비수 김정호,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최근 새롭게 부임한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김학범 감독의 부름을 받아 대표팀에 깜짝 발탁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선수가 있다. 바로 인천유나이티드 중앙 수비수 김정호다.

울 시즌 입단한 신인으로서 R리그 출전 등으로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며 프로 무대 데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김정호를 UTD 기자단이 월간 매거진 인터뷰를 위해 만나봤다.

## 형 따라 시작한 축구, 나의 롤 모델은 아버지

김정호에게는 3살 터울 형이 있다. 유난히 잘 따르고 좋아했던 형을 따라 다녔다는 김정호는 “어렸을 때 형이 먼저 축구를 시작했다. 형을 좋아해 자주 따라다니며 자연스럽게 축구에 대해 흥미가 생겼다. 그러면서 초 3때부터 축구를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김정호는 “부유하지 않은 살림에도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두 아들을 교육시키려고 땀바라지 해주셨다. 정말 존경하고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아버지는 내게 롤 모델 그 자체”라며 끝이 없는 부모님의 내리사랑에 대해 큰 감사를 표했다.

사회에 나와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은 의미가 큰 법. 이에 대해 김정호는 “첫 월급이 타이밍 좋게 설에 들어오면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비롯해 친척들에게 세뱃돈을 드렸다. 그렇게 첫 월급은 다 썼지만 기본만큼은 정말 좋았다”고 밝히면서 가족에 대한 큰 애정을 표출했다.

## 수비수 전향...무실점으로 경기 마치면 “짜릿”

대개 수비수는 10번 잘해도 1번 실수하면 질타를 받고 반대로 공격수는 9번을 놓치더라도 1번의 귀중한 골을 넣으면 환호를 받는다. 누군가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공격수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러나 김정호는 반대로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보직을 옮겼다.

이에 대해 김정호는 “인천대 입학 직후 김시석 감독님의 권유가 있었다. 때마침 주전 선배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1학년인 내게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비수로서 한 번 실수를 하면 질타를 받지만 반대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면 더욱 짜릿하다”며 미소 지었다.

최근 김정호는 U-23 대표팀에 깜짝 발탁되어 주장직을 수행한 바 있

수비수로서 한 번 실수를 하면 질타를 받지만  
반대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면 더욱 짜릿하다

개인적인 목표는 아시안게임 출전이고,  
팀에서의 목표는 최다 경기, 영플레이어상도 받고 싶다.

아직 데뷔는 못했지만  
언젠가 내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다. 김정호는 “김학범 감독님이 수비부터 공격을 전개하는 것을 선호하신다”며 “감독님의 스타일에 잘 맞다고 생각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의 강점을 보다 살려서 경쟁했던 것 같다”고 소집 당시를 회상했다.

김정호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셨으면 해

U-23 대표팀 소집훈련 이후 김정호는 무엇보다 보다 큰 자신감을 찾았다. 그는 “대표팀에 다녀온 뒤 나도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표팀에서의 경험이 이제는 큰 자신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대표팀 소집이 선수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됐음을 말했다.

신인으로서 패기 가득한 그에게 2018년 데뷔 시즌의 목표를 물었다. 김정호는 “개인적인 목표는 아시안게임 출전이고, 팀에서의 목표는 신인선수를 중 최다 경기에 나서며 영플레이어상도 받고 싶다. 무엇보다 인적이 상위 스플릿에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단기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스스로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듬직함’이라는 표현을 꼽았다. 김정호는 “팬들에게 듬직하고 안

정적이며 수비의 핵심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만들겠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직 데뷔는 못했지만 언젠가 내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으로 더 노력할 테니 김정호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팬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선수가 될 테니 앞으로 더 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하고 싶다”고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글 = 김명권 UTD기자 (iu\_football@naver.com)



INCHEON  
UNITED

김정호  
DEFENDER

1995년 5월 31일  
187cm / 84kg

IUFC  
**BLUE MARKET** 

## 오직 인천만을 위한 디자인

집업 트레이닝 블루(춘추용) 120,000원

집업 트레이닝 화이트(하계용) 100,000원

블루마켓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K LEAGUE 1



우리는 인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국철 도원역 / 수인선 승의역



vs 제주

5 / 5 (토)  
14:00

어린이 무료입장



vs 울산

5 / 20 (일)  
14:00



☎ (032) 880 - 5500  
WWW.INCHEONUTD.COM

